

---

## 콜롬비아-베네수엘라 국경: 분쟁의 현장

마리오 발레로 마르티네스

베네수엘라 안데스 대학교 교수

---

원제와 출처: Mario Valero Martínez, “La frontera colombo-venezolana: escenarios de conflictos”, *Nueva Sociedad*, No. 289, septiembre-octubre de 2020, pp. 95-106.

핵심어: 분쟁, 공간성, 국경, 지정학,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국경, 특히 콜롬비아와의 접경 지역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21세 초반 20년 간 정부 차원의 핵심 정책과 주요 행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sup>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인접 국가들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이해관계에 따라 국경은 그 기능적 용도가 주기적으로 변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 국경의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우고 차베스(1999~2013년)와 니콜라스 마두로(2013~2018년) 대통령 집권기를 지칭한다.

## 1) 정치적-이념적 유사성에 기초한 결속

이 맥락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당선된 해인 2003년 관계를 재정립하고, 2005년 전략적 동맹을 체결해 이를 비준했다. 새로운 관계에서는 국제무대 참여와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상업적 지형 구축이라는 야심찬 목표 집중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그리고 보완책으로 양국의 이해관계 증진을 위한 상세한 경제적, 사회적 이니셔티브를 담은 사업을 재구상하기로 제안했다. 합의 사항을 후속 점검하기 위해 ‘양국 간 고위급 위원회’를 재가동하고, ‘국경개발사업단’을 발족했다. 해당 사업단에서는 특히 산타엘레나데우아리렌(Santa Elena de Uairén,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주)과 파카라이마(Pacaraima, 브라질 로라이마 주) 국경 문제를 담당한다. 이 동맹은 2012년 복잡한 절차에 직면했던 베네수엘라의 메르코수르(Mercosur) 정회원국 가입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되었다.

## 2) 정치적-이념적 유사성 여부와는 무관한 우호적 당사자 간 협약

이 맥락에서는 2004년 우고 차베스 정부가 조지타운에서의 공식 성명을 통해 가이아나와 유보 상태에 있는 베네수엘라 영토에 대한 반환 요구라는 역사적 사건에 문제를 제기하며 양국간 관계 전환에 나선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놀라운 조치는 하지만 ‘우리 아메리카 민중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ALBA)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이 조치는 1966년 제네바 협정 서명을 통해 획득한 합의안과 역사적 맥락을 왜곡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지속적인 반환 정책에 극단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차베스 정부는 양국 간 협상을 뒷전으로 하고, 영향력 강화와 볼리바르 범시민-군사 프로젝트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 정책 전환은 가이아나와의 관계를 계기로 카리브해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드러내며, 이는 2005년 ‘페트로카리브 에너지 협력 협정’

체결로 한층 강화되었다.

### 3) 지정학적 대치

이 맥락에서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정부 간 만연한 갈등을 들 수 있으며, 지방과 지역 차원에서 시민들의 밀접한 상호교류와 유대를 통해 형성된 인문 지리를 반대급부로 하는 복잡하고도 험난한 현실을 직면하고 있다. 양국 갈등은 국가간 영토를 획정하는 2,119킬로미터에 이르는 경계를 따라 자리한 도시와 농촌 간에 발생하는 이질적이고 복잡한 초국경적 상호작용을 거치며 지리적, 역사적으로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해 베네수엘라 타치라 주에 구축된 도시 구조와 하부 구조들이 콜롬비아 노르테데산탄데르 주와 어떤 연계성을 갖는가가 특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어 왔으며, 이는 양국 간 갈등이 중점적이고 첨예하게 발생하는 핵심 사안인 동시에 양국간 갈등이 집중적으로 표출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브라질과 가이아나와의 관계에서 도입했던 전략과는 달리 콜롬비아와의 관계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거의 영구적인 갈등 하에 행위와 반발 행위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으며, 갈등의 일환으로서 국경을 종종 활용했다. 이 같은 환경은 차베스 정부가 콜롬비아의 게릴라부대 특히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에 보였던 공감과 동조라는 기초 하에서 조성되었다. 차베스 집권 초기 베네수엘라 영토 내 반란군들의 증가와 국경 지역 내 게릴라세력의 활동 기지 구축과 관련해 비판들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2005년 FARC 내 소위 외교부 장관이라고 불리던 로드리고 그란다를 카라카스에서 체포한 사건이 발생하며 양국 간 외교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양국 정부 간 거리를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양국 간 괴리는 안데스 통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베네수엘라의 ‘안데스공동체’(CAN) 탈퇴를 통해 노골적으로 표출된 지정학적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반영되었다. 이 중대한 결정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페루 지도자들과의 의견 대립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베네수엘라 정부가 볼리바르 범시민-군사 프로젝트의 전략 지정학적 목표와의 양립불가능성을 내세워 안데스공동체에 반대해 전개해왔던 적대적 운동들을 고려하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이탈이었다. 베네수엘라의 탈퇴는 안데스공동체를 약화시켰고, 상업적 교류에 타격을 가했다. 지방 차원에서는 국경지역의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549 조항과 502 조항에서 승인된 ‘국경통합구역’ 조성 가능성을 무마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정치적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지정학적 접근은 ‘2007-13 국가개발계획<sup>2)</sup>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는데, 〈전 지구적 세력의 새로운 중심축에 맞춰 베네수엘라의 대외 정책을 수립한다는 목표 하에 특징, 관계 수준, 정치적 친밀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규정된 지리적 구역을 의미하는 ‘전략 지정학적 이해 구역’ 설립이라는 조항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콜롬비아 알바로 우리베 정부(2002-10년)와의 관계가 배제된 상태였고, 그 당시까지 양국 간 관계는 게릴라 문제와 관련한 끊임없는 비난으로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다. 특히 FARC에 의해 납치된 45명의 인질 석방을 위한 인도주의적 합의에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콜롬비아 대통령이 지원함에 따라 2007년 수개월간 유지되던 외교적 평화가 결국 허망하게 끝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sup>3)</sup> 당시 양국 간 관계 개선은 차베스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 중단, 갑작스런 비방과 공격 중단 등 복잡한 요인이 배후로 작용했었다.

2)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Líneas generales del Plan de Desarrollo Económico y Social de la Nación* (2007-2013), Caracas, 2007.

3) *Intervención del Presidente de Colombia, Álvaro Uribe Vélez, ante la Asamblea General de las Naciones Unidas. Septiembre 27 de 2007 (Nueva York-eeuu)*, 〈[http://historico.presidencia.gov.co/discursos/discursos2007/septiembre/onu\\_270907.html](http://historico.presidencia.gov.co/discursos/discursos2007/septiembre/onu_270907.html)〉.

이처럼 갈등을 거치며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경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강화하고, 자주적 조국 계획이라는 기조 하에 영토통제전략을 시행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고, 이를 위해 접경지역 도시들의 사회공간적 필요와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던 공공 정책 발의안을 폐기했다. 애초 이 발의안은 각 국가의 시장 가격 차이에 기인하는 국경지역 무역 불균형으로 촉발된 휘발유와 식량보급품 밀매를 통제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2008년 3월, 차베스 대통령이 양국 간 외교 관계 단절, 보고타에 주재하는 베네수엘라 대사관 철수, 국경 폐쇄, 전쟁 무기 충동원을 통한 군사태세 강화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리면서 허약한 양국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전쟁이 가시화되는 듯했다. 이는 콜롬비아 정부에 대한 경고 조치였고, 콜롬비아 군대가 에콰도르(당시 베네수엘라와 정치적, 이념적으로 동맹 관계였던 세력이 통치하던) 국경지역에서의 군사 작전을 통해 반란군 기지를 파괴하고, 게릴라의 지도자 라울 레예스를 살해한 사건에 반발하여 FARC에 대한 연대를 표하기 위해서였다. 이 대립에서 차베스는 지리적 위치와 국경 간 교류로 인해 분쟁의 언론보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인 접경지역과 도시에 군대를 동원하는 전략을 집중 활용했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간 상호교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인 산안토니오와 우레냐 두 도시들로 통합된 도심 축에 해당했다.<sup>4)</sup>

논쟁은 협박과 공격적 담론을 넘어서지 않았지만, 전쟁 우려로 국제적 경각심을 끌이지 않았다. 국제적 경각심은 양 국가를 잇는 시몬볼리바르 다리에서의 평화 콘서트 등의 형태로 표출되었다. 마찬가지로 국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은 다양한 규제로 제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양국간

4) M.M. Valero, "Ciudades transfronterizas e interdependencia comercial en la frontera Venezuela / Colombia", en Haroldo Dilla (coord.), *Ciudades en la frontera. Aproximaciones críticas a los complejos urbanos transfronterizos*, Editora Manatí, Santo Domingo, 2008.

공생의 터전에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동요되었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제 20차 리우 그룹 정상회의에서 양측 관계자 간 사과와 주권을 존중하겠다는 다짐 그리고 화해를 통해 갈등은 해소되었지만,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양국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분열 단계에 접어들었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국경 도시들에 군사 작전이 재개되었고, 이들의 만행과 인권 유린이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산안토니오, 우레나 등 국경 도시들과 공동체에서는 상인, 삼륜 택시 운전수, 노점상을 비롯한 전 분야 노동자들이 보안군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고 평화, 노동권, 국경 간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기 위해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게 되었다.<sup>5)</sup>

이처럼 군사적, 억압적 상황이 전개되는 와중에도 국경지역인 콜리야 주, 아푸레 주, 볼리바르 주에 배치된 FARC 훈련 기지에 대한 비난은 계속되었고, 타치라에서의 강탈과 납치 행위도 지속되었다.<sup>6)</sup> 게다가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과 논란이 되는 준군사조직들이 국경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침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이 근원이 되어 2010년 콜롬비아 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주둔한 게릴라 세력의 활동과 확장을 비난하는 성명을 미주기구에서 발표함에 따라 양국 간 분쟁이 다시 심화되었다.<sup>7)</sup> 이에 대해 차베스는 동일한 행동 방침을 견지했으며, 전면적 관계단절, 국경 폐쇄, 국경 도시에 군대 파견, 무장 갈등을 통한 위협으로 대응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상업 교류에 차질이 발생했고, 국경 폐쇄는 접경 도시들의 지역 경제를 부양하던 중소기업들의 상업과

5) M.M. Valero, "Paisajes apropiados: reconfiguración de otras identidades transfronterizas", en Juan Carlos Ramírez Brenes (coord.), *Fronteras latinoamericanas: ejemplos para su comprensión*, Jader, San José de Costa Rica, 2017.

6) Javier Ignacio Mayorga, *Las farc en Venezuela, huesped incomodo*, Policy Paper No 32, Friedrich-Ebert-Stiftung, Bogota, 2010.

7) OEA, Consejo Permanente, *Acta de la sesion extraordinaria celebrada el 22 de julio de 2010*, OEA/Ser. G CP/ACTA 1765/10, <<http://www.oas.org/consejo/sp/actas/acta1765.pdf>>.

생산 활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초래했다.

그렇지만 같은 해 차베스 대통령과 최근 집권한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산타마르타에서 회담을 개최하며 양국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갈등 완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놀라운 전환을 의미했다. 더 나아가서 회담에서는 2008년부터 유보 상태에 있던 콜롬비아 수출품에 대한 관세 징수, 마약 거래와 밀수 관련 통제, 상업 활동 재개, 경제적 호혜성, 사회적 투자와 인프라 개발을 위한 다섯 개의 위원회 설립을 발표했다. 콜롬비아 정부와 FARC 간의 평화협정이라는 기류에 따라 베네수엘라 지도부가 참여하는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었다. 이 같은 성과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정치적, 지적학적 목표와 관련해 실질적인 두 경쟁 상대들 간 도달한 실용적 합의라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5년 간 분란이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국경 지역에서 분쟁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게릴라세력과 준군사조직의 침입, 밀매, 국가의 위기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해 국경지역 갈등을 정부가 악용하는 행위 등과 관련해 끊임없는 비난을 야기하는 사건과 상황들이 계속되었고, 이미 복잡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다.

## 위기와 국경: 변화하는 상황

2013년 베네수엘라의 사회적, 경제적 퇴보는 56.2%에 달하는 인플레이션, 식료품과 의약품 부족, 국가적 수준에서는 22%로 추정되는 물량과 국경 지역에서는 더 높은 비중 물량의 공급 중단과 같은 우려스러운 지표들로 나타났다. 2년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고, 인플레이션은 세 자리 수인 189%를 기록했으며, 식료품은 36.2%, 의약품은 70%의 물량 공급이 중단되었고, 다차원적 빈곤 인구가

총 인구의 41.3%에 달했다.<sup>8)</sup> 이렇게 악화된 생활여건에 정치 위기와 독재적 권력 행사를 통해 점차 억압적 체제로 변질되어 가는 정부의 행태가 결부되어 있다. 소외된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국경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며, 국경 지역에는 접경지역 도시와 지방 특유의 공적 서비스 부족과 결합, 취약하거나 초토화된 생산 구조와 상업 구조, 영토 통제를 위한 게릴라 부대와 준군사조직의 폭력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국경의 군사화, 약탈,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 공간은 휘발유와 이보다는 비중이 작지만 보급품 밀매 그리고 마약 밀매라는 수익성 높은 활동, 양국의 군대, 게릴라, 준군사조직, 정부 관료들의 통합적 연계를 통해 구축된 강력한 네트워크로 통제되는 불법 무역이라는 현실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곳이다. 마찬가지로 국가 위기가 심화될수록 국경 도시와 지역 간 소규모 불법 상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균열로 인해 다른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빈곤에 내몰린 사회 계층에게는 일종의 당위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런 참혹한 광경은 베네수엘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결과이며, 상당 부분 국제적 해법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국경 밀매와 거의 전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물품의 부족이라는 특정 문제는 볼리바르 범시민-군사 프로젝트의 실패, 부패, 정부 운영 미숙과 같이 물품 부족의 근본적 원인으로부터 세간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정부가 애용하는 변명거리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의 위태로운 여건을 고려하고 그 역량과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 차별화된 공공 정책을 도입하는 대신에, ‘국경-밀매-결핍’이라는 세 가지 명백한 현실을 선정적으로 결합해 문제의 핵심으로 제시하고, 군사화를 통해 문제를 심화시키며, 이와 동시에 지난 수십 년 간 활용하던 구도를 그대로 반복해왔다. 국경을 오로지 문제와 갈등

8) 본고에서 인용한 다차원적 빈곤 자료는 ‘생활여건조사’(ENCovi)를 출처로 했다(<https://encovi.ucab.edu.ve/>).

의 공간으로 투영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토 통제를 위해 범기관적 조직인 ‘국경의 범시민-군사 본부’(Estado Mayor Fronterizo Cívico-Militar)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잦은 교역 대상 물품의 압수, 국경간 이동 통제, 부분적 국경 폐쇄,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sup>9)</sup>

2015년 8월 산안토니오에서 준군사조직이 베네수엘라 군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놀랍게도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원칙적으로 일부 지방 도시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경 폐쇄를 감행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들 후 해당 조치는 콜롬비아와의 국경 전역으로 확대 시행되었고, 군대 파병과 특히 산안토니오에서의 폭력적이고 잔혹한 진압으로 이어졌다. 폭력성은 라인바시온 구역에서 극심했는데, 보안군이 베네수엘라 국경에 테러를 퍼뜨리는 동안 빈민들과 미등록거주자들이 대거 추방되었고, 거주지가 파괴되었으며, 양국 국적이 혼재된 가족 구성원들은 분리되었다.

이 조치는 국경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특정 사건에 대한 단순한 대응이 아니었다. 이보다는 심화되는 국가 위기의 원인으로 국경과 외부적 요인에 집중하려 하는 국가적 핵심 전략의 재확인이었다. 마두로의 연설이 “밀매, 투기경제, 준군사조직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콜롬비아 측 관계자들을 비난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던 것도 우연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 마두로는 역사적 개입을 통해 보고타에서 정부 간 이견을 이유로 자신을 암살하려고 계획했다는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다시 한 번 마두로는 갈등이 고조된 환경이 필요했던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에 분개했고, 미주기구를 포함해 다양한 국제적 경로를 통해 베네수엘라 정부의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정부 간 긴장관계가 다시 조성되었지만 관계가 단절되지는 않았다. 산타마르타에서 차베스와 산토스 회담을 통해 획득

9)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Gaceta Oficial No 40,225, Decreto No 295, *Creación del Estado Mayor Fronterizo Cívico-Militar dependiente de la Presidencia de la República*, 7 de Agosto de 2013.

했던 5년간의 상대적 평화기가 중단되었고, 양국 간 대립으로 특징지어지는 국경의 지정학적 상황으로 회귀했다.

이러한 전환에 본고 도입부에서 언급한 또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가 펼쳐졌고, 분쟁의 양상이 변화했다. 첫 번째는 베네수엘라와 거리를 두었던 가이아나의 데이비드 그레이저 정부였다. 그레이저 대통령은 1966년 제네바 협정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고, 해당 건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호소하겠다고 위협했다. 동시에 그는 미경제 획정 구역으로 영토 분쟁 구역에 해당하는 해양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탐사와 채굴을 위해 다국적 회사인 엑손모빌사와 단독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양국 관계에 긴장을 조성했다.

정치적-이념적 유사성에 기초해 형성된 또 다른 시나리오가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탄핵, 그리고 마두로와 미세우 테메르 간 즉각적 관계 단절로 무너졌다. 이로 인해 전략적 동맹은 국경개발사업단 결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위한 그 어떤 긍정적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중단되었다. 국경개발사업단은 광산 채굴로 인한 환경 파괴와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아마조나스 주와 볼리바르 주에서 확산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지정학적 시나리오가 변화함에 따라 국경 특히 콜롬비아와 인접한 일대는 분쟁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수많은 사례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국경 폐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문제를 심화시키고 갈등의 새로운 여지를 만든다. 이는 특히 2015~16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 폐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결정은 그 인근에 밀접한 사회공간적 조직, 국경 간 집중적인 유동성, 높은 의존성, 호혜성, 공통의 지리 문화적 공간, 지역적 차원의 상호작용과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관계의 공간을 창출하는 영토 역동성을 보유한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 국경 폐쇄로 사회적 퇴보가 심화되었고, 국경 유동성을

위한 불법 지름길로 사용되는 경로가 약탈적 범죄 조직들의 통제 하에 확대 구축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경 도시에서 소상공인의 생산 활동과 그들의 합법적 무역 활동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경이 물품 부족의 원인이라는 정부의 진부하고 반복된 담론이 허위였음이 명백해졌다.

## 위기, 이주민, 국경 간 이동

2016년 8월 국경의 부분적 개방은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발표되었다. 당시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다차원적 빈곤률 증가(46.2%), 인플레이션 증가(550%), 식료품 부족(72%), 의약품 부족(85%)와 같은 지표로 반영되었고<sup>10)</sup>, 국가 역사상 유례없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도래했음을 암시했다. 국경 간 이동을 허용함에 따라 개인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극적인 상황이 펼쳐졌다. 한 편으로는 베네수엘라인들이 식료품과 의약품 확보뿐만 아니라 콜롬비아측 국경 지역의 편의시설과 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른 한 편으로 국경 지역은 베네수엘라인들의 예기치 못한 대규모 이주 경로로 변모했고, 단시간에 국가의 모든 국경지역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말 기준, 1,642,442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국경을 건넜고<sup>11)</sup>, 이 가운데 53.8%가 남미 국가들을 이주 목적지로 선택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대응은 초기에는 반대 세력들의 음모에 의한 가짜 뉴스라고 치부했고, 이후에는 이주민들을 ‘경제적 노예’, ‘관광객’, ‘변기 세척술’이라고 부르며 낙인을 찍었다. 접경 지역 도시에서는 빈번한 무역에

10) Human Rights Watch, *Crisis humana en Venezuela*, 2016, ([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venezuela1016sp\\_web\\_2.pdf](http://www.hrw.org/sites/default/files/report_pdf/venezuela1016sp_web_2.pdf)).

11) OIM, *Tendencias migratorias en las Américas*, OIM, 2018, ([https://robuenosaires.iom.int/sites/default/files/Informes/Tendencias\\_Migratorias\\_Nacionales\\_en\\_America\\_Venezuela.pdf](https://robuenosaires.iom.int/sites/default/files/Informes/Tendencias_Migratorias_Nacionales_en_America_Venezuela.pdf)).

대한 규제 조치를 취했고, 주요 도로에 이동 공간을 축소하기 위해 도로와 통행로에 장애물(울타리와 철조망)을 설치했지만 그 의도는 인구 대탈출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다.

2018년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 발생(1,698,488%)<sup>12)</sup>, 다차원적 빈곤 증가(51.1%), 식료품과 의료품 부족(85%) 등 절망적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베네수엘라에서 굶주린 인구가 2013~15년 290만 명에서 2016~18년 680만 명으로 증가했다고 집계했다.<sup>13)</sup> 이 극적 상황에 선거 부정과 관계된 정치 갈등이 추가되었고, 국내외적으로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이후 대선 재선거까지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붕괴는 전면적이었고, 비록 볼리바르 정부 관료들은 부인했지만 베네수엘라인들의 일상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다. ‘베네수엘라 의료관련 시민단체 연합조직’(CODEVIDA)<sup>14)</sup>은 2015년부터 베네수엘라의 복잡한 위기 상황과 전 국민의 생활과 복지에 미치는 폐해를 조사해왔다. 이것이 베네수엘라인들이 합법적 경로와 위험한 협계를 통해 대탈출을 감행하는 주된 요인이며, 이주민의 숫자는 330만 명에 이르렀다.

2019년 2월 베네수엘라 국회와 다양한 국제 비정부기구들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합의함에 따라 국경과 인도주의적 위기가 주된 관심사로 부각됐다. 미국, 캐나다, 라틴아메리카와 유럽 여러 국가들의 지원으로 콜롬비아, 브라질, 아루바와 인접한 세 곳의 접경 지역에 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그리고 일부

12) Asamblea Nacional de Venezuela, Comisión de Finanzas, *Informe* año 2018.

13) FAO, OPS, WFP, UNICEF, *Panorama de la seguridad alimentaria y nutrición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9*, Santiago de Chile, 2019, (<http://www.fao.org/3/ca6979es/ca6979es.pdf>).

14) COVIDEA, *Situación de los derechos a salud, alimentación y educación de grupos vulnerables en la emergencia humanitaria compleja de Venezuela*, (<http://www.accionsolidaria.info/website/wp-content/uploads/2018/10/Informe-Conjunto-Emergencia-Humanitaria-Compleja-Venezuela-169-Audiencias.pdf>).

는 국제적 맥락에서의 정치적 도전을 의미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큰 기대감이 조성되었고, 인도주의적 지원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민들의 조직화가 동반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국가적 긴장과 갈등 상황을 초래했고, 위기를 부인하는 마두로 정부가 모든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보안군과 군대 및 시민군 동원을 통한 가혹한 억압, 폭력과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계기가 되었다. 폭력과 인권 유린은 콜롬비아와의 국경 도시인 산안토니오와 우레나, 브라질과의 국경 도시인 산타엘레나데우아리엔과 인근 지역 등에서 극심했으며, 카마라파카이의 폐포 원주민 공동체에서는 세 명이 살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과 전반적인 인권 유린 실태가 2019년 7월 ‘유엔인권고등판무관’(OHCHR)이 발표한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sup>15)</sup>

분쟁이 있고 수개월 후 국경이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는 멈추지 않았으며, 수많은 경로를 통한 국경 간 일상적인 상업적 교역 활동도 중단되지 않았다. 이는 특히 콜롬비아와의 국경지역에서 강도 높게 전개되었으며, 이 국경에 형성된 영토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2019년 후반이 되자 베네수엘라 이주민 수는 450만 명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1,771,237명이 콜롬비아에 그리고 499,506명(28%)은 접경 지역에 분포했다. 이 수치들은 베네수엘라 대탈출이 국경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며, 동일한 상황이 브라질과의 국경 지역, 특히 대다수가 빈곤 지역에서 위태로운 생활환경에 처한 로라이마 주에서 펼쳐졌다. 이 모두가 베네수엘라 위기의 혹독한 현실을 반영한다. 하지만 초국경적 사회공간적 유동성에는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임시 고용자들의 순환적인 출퇴근, 매달 말 송금을 받기 위해 베네수엘라 다른 지역에서 콜롬비아 접경 도시로 이동

15) Oficina de la Alta Comisionada de la onu para los Derechos Humanos, *Informe de la Alta Comisionada de las Naciones Unidas para los Derechos Humanos sobre la situación de los derechos humanos en la República Bolivariana de Venezuela*, 2019, (<http://www.ohchr.org/sp/newsevents/page/displaynews.aspx?Newsid=24788&langid=s>).

하는 노인들처럼 접경지역에서 상업적 활동과 가족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이동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모든 유동성이 콜롬비아 이민국에 접수된 4,315,103건의 ‘특별이민카드’ 신청 건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양국 접경 도시들에 사회공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이며, 여전히 상존하는 분쟁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구원, 연대, 기회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 덧붙이는 말

예기치 못했던 코로나 19 사태는 남미에서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이 귀국을 결심하도록 영향을 미쳤다. 위험하고 고단한 여정이 국경까지 이어졌다.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입국은 쉽지 않았고, 일주일에 3일 간 제한된 인원만이 입국할 수 있게 하는 제한 조치는 난민들이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공간의 처참한 환경과 맞물려 또 다른 시련으로 다가왔다. 설상가상으로 전 세계적인 비극 상황에 마두로 정부는 브라질과 콜롬비아를 감염 근원으로 지목하여 형상화하고 귀환 동포들에 낙인을 찍는 악의적 행위를 했다. 심지어는 콜롬비아 대통령이 귀국 이주민들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감염시키기 위해 사전 계획된 작전을 지휘했다는 어이없는 극단적 비난을 퍼붓기도 했다.<sup>16)</sup> 베네수엘라 정부에게 국경은 감염의 근원이며, 한 정부 관료가 언급하듯이 귀국 여건에 무관심한 이들에게 이주민들은 “생물학적 무기”일 뿐이다.<sup>17)</sup> 다시 한 번 지난 20년 간 그랬듯이 국경은 볼리바르 범시민-군사 체제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용되며,

16) “Maduro acusa a Iván Duque de planear infectar a venezolanos con covid-19”, *Infobae*, 20 de Mayo de 2020.

17) “Quien ingrese a Zulia por trocha cumplirá cuarentena en celdas por ser ‘armas biológicas’”, *Tal Cual*, 21 de Mayo de 2020.

국적과 무관하게 국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강정원 옮김